

조선후기 冊紙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연구

- 正祖代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es and Standards of the Inner Pages Used in
Book Publish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ed on the Reign of King Jeongjo -

진 인 성 (Jin, In-Sung)*

◁ 목 차 ▷

1. 서 론	3.2 『탁지준절』에 기재된 책지의 규격
2. 冊紙의 종류	3.3 인출 서적을 통한 冊紙의 규격 검토
2.1 조선후기에 사용된 책지	4. 결 론
2.2 정조대 서적 간행에 사용된 책지	<참고문헌>
3. 冊紙의 규격	[부록]
3.1 법전에 기재된 종이의 규격	

< 초 록 >

이 논문은 조선후기 서적 간행에 사용한 책지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문헌 자료가 풍부하고 현존하는 실물이 많이 남아있는 정조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서적 간행에 사용한 책지를 알아보기 위해 『羣書標記』에 수록된 간본을 대상으로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등에서 서적 頒賜 기록을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서적 간행에 사용된 책지의 종류는 총 25가지로 조사되었다. 서적 간행에 사용된 책지는 簡壯紙, 京造紙, 藁精紙, 卷冊紙, 唐紙, 毛面紙, 白綿紙, 白紙, 白休紙, 別白紙, 不剪紙, 粉唐紙, 雪白紙, 雪花紙, 嶺壯紙, 完白紙, 完壯紙, 完紙, 禮單紙, 壯紙, 冊紙, 天銀紙, 貼冊紙, 稍厚白紙, 太史紙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적 간행에 가장 많이 사용한 종이는 백지였고, 다음으로는 백면지를 많이 사용하였다. 백지와 백면지는 봉안건, 진상건, 내입건, 반사건에 두루 사용되었으며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중국 종이인 당지, 모면지, 분당지, 태사지도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책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이 규격을 알아본 결과 백지의 크기는 77.5×47.0cm로, 백면지의 크기는 105.7×79.9cm로 나타났다. 현대의 종이와 크기를 비교해보면 백면지는 4·6판 계열의 전지(109.0×78.8cm)와 비슷하며 백지는 4·6판 계열의 2절지(78.8×54.5cm)와 비슷하였다. 정조대의 서적 반사 기록과 일치하는 실제 내사본을 대상으로 크기를 조사한 결과, 문헌에 기재된 책지의 규격 내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서적 인출시 백지 1장을 2등분하거나, 백면지 1장을 4등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要語: 正祖, 冊紙, 白紙, 白綿紙, 『羣書標記』, 서적 간행, 頒賜, 규격

* 수원화성박물관 연구원(jis89135@naver.com)

접수일: 2017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9일
서지학연구, 제72집, 377-403,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377]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ypes and standards of the inner pages used in book publishing in the era of King Jeongjo(正祖)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out the studies, we define that the inner pages is refer to the paper which used in the body of a book. After a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 records in *Kunseopyoki*(羣書標記) about the distribution of books in that era, it turned out that 25 types of inner pages were employed in publications such as Kanjangji(簡壯紙), Kyeongjoji(京造紙), Gojeongji(藁精紙), Kwonchaekji(卷冊紙), Dangji(唐紙), Momyeonji(毛面紙), Baekmyeonji(白綿紙), Baekji(白紙), Baekhyuji(白休紙), Byeolbaekji(別白紙), Boojeonji(不剪紙), Boondangji(粉唐紙), Seolbaekji(雪白紙), Seolhwaji(雪花紙), Ryeongjangji(嶺壯紙), Wanbaekji(完白紙), Wanjangji(完壯紙), Wanji(完紙), Ryedanji(禮單紙), Jangji(壯紙), Chaekji(冊紙), Cheoneunji(天銀紙), Cheopchaekji(貼冊紙), Chohwoobaekji(稍厚白紙), Taesaji(太史紙).

The most widely used type of inner pages was Baekji, and Baekmyeonji. The Chinese papers like Dangji, Momyeonji, Boondangji, Taesaji were also used in publications, though those were not as much used as Baekji and Baekmyeonji.

It is observed that the size of Baekji is 77.5×47.0cm, and that of Baekmyeonji is 105.7×79.9cm. After investigating the actual size of the book that matches the records about the distribution of books in the era of King Jeongjo, We can infer that the book was published by dividing a full sheet of Baekji into two equal parts or dividing a full sheet of Baekmyeonji into four equal parts.

Key words: Jeongjo(正祖), inner pages, Baekji(白紙), Baekmyeonji(白綿紙), *Kunseopyoki*, Publication, Distribution, Standards

1. 서론

종이는 발명된 이래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서사재료로서 역사상 오랫동안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 쓰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책의 유통과 보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조선시대의 종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명칭이 있었으며, 하나의 서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종이가 사용되었다. 이는 책을 구성하는 형태에 따라 본문을 인출하고 정서할 때 사용하는 印出紙·正書紙, 冊衣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衣紙, 衣紙를 배접하는데 사용하는 後襟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간행된 서적은 동일한 내용이라도 粧縑의 형태나 본문에 사용된 종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가치나 용도가 달라진다. 이는 校書館에서 서적을 간행할 때 御覽件, 奉安件, 頒賜件 등으로 나누어 상황에 들어가는 재료와 인출용 재료를 달리 쓴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²⁾ 이처럼 서적의 용도에 따른 서사재료의 구별은 조선시대의 인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조선후기 찬란한 문예부흥의 시대를 연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양질의 서적들을 편간하고 수집하였으며 壬辰字, 丁酉字, 整理字 등의 금속활자 주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으로 왕실 출판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정조대의 서적 편간과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는 『羣書標記』를 통해 엿볼 수 있다.³⁾ 당시 간행된 서적들은 현전하는 실물을 통해 뛰어난 인쇄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 상태는 인출장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용된 종이, 먹과 큰 관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특히 정조대의 인쇄문화를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冊紙⁴⁾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책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종이 제조에 사용된 섬유 종류, 두께, 밀도, 발 무늬, 발끈 폭에 대해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⁵⁾ 또한 조선시대의 다양한 종이의

1) 조계영, “조선 후기 중국서책의 수용과 형태 인식,”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 (서울: 소명, 2014), 37-38.

2) 정조대 『國朝寶鑑』의 간인 과정을 기록한 『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서 진상건이나 반사건에 따라 장황 재료를 달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장황 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계영,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縑과 保存 研究 - 『璿源系譜紀略』과 『國朝寶鑑』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62-70 참조.

3) 『羣書標記』는 정조가 세손시절이던 1772년(영조 48)부터 1800년(정조 24)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지은 御製와 신하들에게 명하여 편찬·간행한 155종 3,991권을 대상으로 엮은 해제집이다. 정조 시대의 서적 편찬과 간행 등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를 엿보는 데는 더할 수 없이 귀중한 문헌이다. 신승운, “『弘齋全書』와 『羣書標記』의 編纂과 刊行에 關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12), 373-374.

4) 책지는 과거부터 서적에 사용하는 종이를 말하는 것인데, 조선시대 서적 간행 과정을 살펴보면 책의 구성 형태에 따라 본문에 사용한 인출지, 冊衣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의지, 배접하는데 사용하는 후배지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려는 책지는 서적의 본문 인출에 사용한 종이를 말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종이의 한 종류로서 ‘책지’라는 명칭을 가진 종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한 책지라는 용어는 서적의 본문 인출에 사용된 종이를 뜻하며, 종이의 한 종류로서 언급될 때는 각주에 표시하여 글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5) 정선영, “조선조기 冊紙에 관한 연구: 서적의 刊行年代 推定을 위한 一試圖,”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종류 가운데 책지로 사용된 藁精紙⁶⁾, 白綿紙⁷⁾, 桑紙⁸⁾, 雪花紙⁹⁾, 楮注紙¹⁰⁾, 草注紙¹¹⁾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군서표기』의 간본을 대상으로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에 나타나는 서적 반사 기록을 통해 정조대 서적 간행에 사용된 종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책지의 종류에 따라 서적의 용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법전과 『탁지준절』에 수록된 책지의 규격을 살펴보고 서적 반사 기록과 일치하는 실물을 통해 크기를 비교하여 문헌에 나타나는 종이의 규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2. 冊紙의 종류

조선시대의 종이는 기본적인 용도인 서사재료로 쓰인 것 외에 천막, 갑옷, 우의, 쫓대, 수통 등을 만들 때에도 사용되었고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종이의 종류도 다양했다. 동일한 원료로 만들어 같은 紙品을 가졌더라도, 용도나 산지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달랐으며 종이의 명칭은 100여 종 이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冊紙는 책의 본문에 사용된 종이로서 책을 책판이나 활자로 인출한 경우 印出紙가 책지이며, 붓으로 書寫했다면 正書紙가 책지이다.¹²⁾ 조선후기 문헌자료인 『萬機要覽』, 『百憲摠要』, 『五洲衍文長箋散稿』, 『度支準折』 등에는 당시 사용된 다양한 종이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왕실에서 서적 출판에 사용한 종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기요람』, 『탁지준절』 같은 정례류 서적의 기록을 보고, 다음으로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에 나타나는 서적 반사 기록을 통해 정조대에 사용한 책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1 조선후기에 사용된 책지

조선후기에는 국가 재정·경제의 제도와 실정 및 그 운용에 대해 서술한 『만기요람』, 『탁지준절』 등이 편찬되었다. 왕실에서 사용한 물품들은 이러한 정례류 서적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만기요

1985); 박상진, “목판 및 종이(韓紙)의 재질 분석,” 『국학연구』 제2집(2003. 6); 조형진, “古書印出用 冊紙의 實驗的 研究,” 『서지학연구』 제27집(2004. 6).

6) 정선영, “藁精紙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8집(2007. 12).

7) 정선영, “白綿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12).

8) 정선영, “桑紙의 보존성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제4권(2004. 12).

9) 정선영, “雪花紙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10) 유세룡, “외규장각 의궤 장황의 특징,”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4).

11) 천주현,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특성,”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4).

12) 조계영, “봉안 서책과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4), 13.

람』은 1808년(순조 8) 徐榮輔와 沈象奎 등이 왕명에 의해 撰進한 책으로, 財用篇과 軍政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지와 관련된 기록은 채용편의 권1 各貢, 권4 戶曹各掌事例에서 찾을 수 있다. 각공의 내용에는 공납 받는 물품과 가격 정보, 進排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호조각장사례 중 雜事例에는 서적 인출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식례가 기재되어 있다.

교서관(校書館) … 책지차초주지(冊紙次草注紙) 매첩(貼)에 7두 5승, 영남. 권책지차저주지(卷冊紙次楮注紙) 매권에 7두 5승, 양호. 의지(衣紙) 매권에 1석 10두, 양호. 시정기지(時政記紙) 매첩에 8두, 호남.¹³⁾

잡사례(雜事例) … 내각(內閣)·옥당(玉堂)의 서책(書冊)으로서 어람건(御覽件)에 쓰는 첩책지(貼冊紙)는 당진사(唐眞絲)로써 장황(粧潢)하고, 관(官)에서 올리는 것과 반사(頒賜)할 것에 쓰는 권책지(卷冊紙)는 홍향사(紅鄉絲: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붉은 명주실)로써 장황한다. 정종 계묘년에 호조에서 이문(移文)하여 정식(定式)하였음.¹⁴⁾

위의 기록을 통해 교서관에서는 서적을 인출할 때 冊紙次草注紙, 卷冊紙次楮注紙, 貼冊紙, 卷冊紙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冊紙次草注紙는 ‘책지용 초주지’라는 뜻으로, 책지¹⁵⁾의 지품은 초주지이다. 초주지는 닥섬유로 만든 종이인데, C-염색법에 의해 원료 섬유를 관찰한 결과 적갈색을 띠고 섬유 가장자리에 얇은 투명막과 횡문 등이 확인되었다.¹⁶⁾

卷冊紙次楮注紙는 ‘권책지용 저주지’라는 뜻으로, 권책지의 지품은 저주지이다. 권책지의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로는 卷을 사용하였으며,¹⁷⁾ 관에 올리는 것과 반사하는 용도의 서적 간행에 사용하였다. 『승정원일기』에서도 초주지는 어람건 서적 간인에, 저주지는 여러 관서에 반사하는 서적 인출에 사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¹⁸⁾

貼冊紙는 어람건 서적 인출에 사용하는 종이로, 지품은 초주지와 같다.¹⁹⁾ 첩책지라는 명칭은 책지의 단위를 貼으로 한 것에서 비롯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13)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신편 국역 채용 군정 만기요람 1』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129.

14)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신편 국역 채용 군정 만기요람 2』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95.

15) 여기서의 책지는 종이의 한 종류로서 ‘책지’를 말한다.

16) 천주현(2014), 131-132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중 초주지로 인출한 의궤의 책지 분석을 통해 초주지가 닥섬유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손계영,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5), 100은 조선시대 고문서의 지질 분석을 통해 초주지의 섬유형태가 닥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17) 『度支準折』 紙地.

“卷冊紙 一卷 紙品楮注紙 …”

18) 『承政院日記』 정조1년 10월 27일條.

“… 允錡曰, 各樣冊子刊印之規, 御覽件則草注紙, 館上與頒賜件則楮注紙舉行, 而至於一時御覽之冊子及舊件冊子之修補者, 皆用草注紙, 則物力難以支當, 今後則以楮注紙, 取用之意,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

19) 『度支準折』 紙地.

“貼冊紙 一貼 紙品草注紙 十張作一貼 …”

첩책지와 권책지의 명칭과 지품에 대해서는 1762년(영조 38)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상복이 말하길, “교서관에 첩책지·권책지가 있는데, 첩책지는 종이 품질이 장흥고의 초주지와 같고, 권책지는 장흥고의 저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교서관의 종이는 많이 남아있고, 장흥고의 종이는 매번 더 쓸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교서관의 첩책지 명칭을 첩책지차초주지로 바꾸고, 권책지의 명칭은 권책지차저주지로 바꿔서 가격을 같게 하여 함께 쓰면 여기는 남고 저기는 부족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²⁰⁾

위의 기사를 보면 첩책지와 초주지의 종이 품질은 같지만, 교서관과 장흥고 등 사용처에 따라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첩책지의 명칭을 첩책지차초주지로, 권책지의 명칭을 권책지차저주지로 바꾸는 것을 의논한 것이다. 이후 첩책지와 권책지의 명칭 뒤에 次草注紙, 次楮注紙를 붙여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貼冊紙次草注紙와 卷冊紙次楮注紙, 즉 초주지와 저주지는 모두 닥나무를 원료로 만들어진 종이다.²¹⁾ 닥나무는 함경도와 평안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하던 식물로, 재배가 용이하고 섬유의 특성상 단단하고 질긴 종이를 만들 수 있어 조선시대의 종이 제조에 가장 주요한 필수 원료였다.²²⁾

다음으로 『택지준절』²³⁾을 통해 왕실에서 사용한 서적 인출용 종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택지준절』은 정부 조달 물자의 가격 등을 정하여 재정 운용에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조에 의해 편찬된 서적이다.²⁴⁾ 내용은 각종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절가, 사용처, 조달기관 등을 기록하였고, 각종 규정을 60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종이와 관련한 항목은 제 6항목인 『紙地』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 『承政院日記』, 영조38년 2월 11일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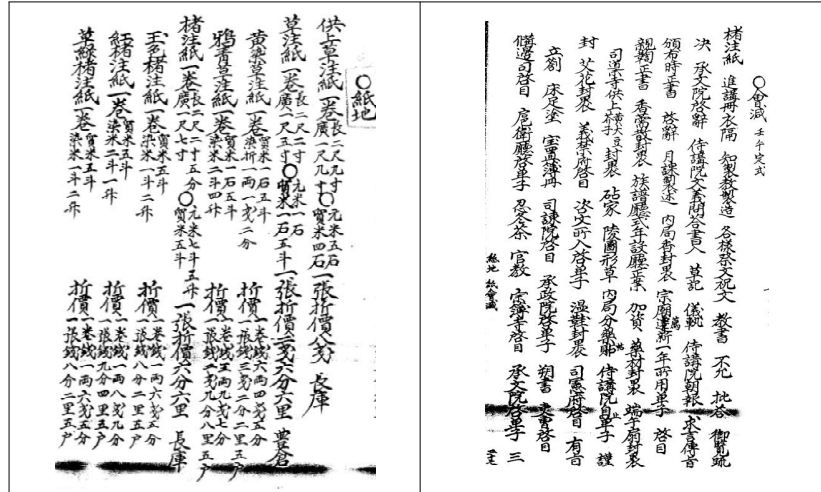
“... 出舉條 相福曰, 校書館有貼冊紙·卷冊紙, 而貼冊紙則紙品, 與長興庫草注紙同. 卷冊紙則與長興庫楮注紙同, 而以其名色之不同故, 不得通同取用. 校書館紙, 尙多遺在, 長興庫紙, 每患加用矣. 自今爲始, 校書館貼冊紙名色, 改以貼冊紙次草注紙, 卷冊紙名色, 改以卷冊紙次楮注紙, 而均其價, 通其用, 則可無彼多遺在此有加用之弊矣. 上曰, 紙品申飭久矣. 相福曰, 然則並與紙品, 而當稍減於前, 亦爲申飭均齊, 使無彼此之異矣. 上曰, 並依爲之...”

21) 손계영, “조선시대 草注紙와 楮注紙,” 『서지학보』 29호(2005), 176-178.

22) 정선영(1985), 35.

23) 17세기 대동법의 전국적 확산 이후 정부 물자의 시장 조달의 확대와 더불어 별무가 증대하는 가운데 영조 때에 별무 제도가 정비되고 나아가 정조 때에 가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하며 『외정리소절목』에서는 별무가를 시가와 대비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정조는 잦은 원행에 따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제만 定例를 세밀하게 마련하고 정비하였고, 물자 구입에 따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원행을 담당하는 외정리소절목 중에 外整理所各種假本年限式例를 두어 175건의 별무가와 시가를 수록하였다.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하여 준절한 것을 모두 모으고 별도로 식례를 갖추면 바로 『택지준절』이 되는 것이다. 이현장, “『度支準折』諸本の 解題와 經濟情報,” 『古文書研究』 제31호(2007. 8), 201-202.

24) 이현장(2007), 193.



<그림 1> 『度支準折』 「紙地」²⁵⁾

<그림 2> 『度支準折』 「紙地」 會減

『지지』에서는 당시 통용되던 주요 종이의 명칭을 93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단위에, 크기, 무게, 元貢價(元米), 別買價(買米), 折價(1張, 1卷), 용도, 조달처(長興庫·豐儲倉·校書館·典設司·內資寺·司瞻寺 등)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93종의 종이에서 조달처가 교서관인 종이는 卷冊紙(紙品楮注紙), 貼冊紙(紙品草注紙), 衣紙(紙品大好紙), 時政記紙(紙品大好紙)로 『만기요람』의 기록과 같다. 다만 『택지준절』에서는 貼冊紙와 冊紙²⁶⁾가 각각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책지에 대한 정보는 1권에 대한 절가만 알 수 있다. 책지 1권의 절가는 2兩 5錢²⁷⁾으로 같은 절가인 종이로는 簡壯紙²⁸⁾가 있다. 이를 통해 『택지준절』에 기재된 책지의 지품은 壯紙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권책지와 첩책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衣紙는 冊衣를 만들 때 들어가는 종이이고, 時政記紙는 『춘추관일기』를 쓰는 종이인데, 의지와 시정기지 둘 다 대호지를 사용한다.²⁹⁾

『지지』의 마지막에는 ‘會減’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楮注紙, 下品楮注紙, 厚白紙, 白紙, 搗鍊楮注紙, 下品搗鍊草油紙, 下品搗鍊草紙, 下品搗鍊紙, 上品搗鍊紙, 供上草注紙, 草注紙, 油芎, 各張油紙 총 13종의 종이에 대한 용도를 살펴볼 수 있다. 회감에 기록된 용례를 통해 종이의 종류에

2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가람古 336.2-T126t, M/F 85-16-297-C).

26) 종이의 한 종류로서 ‘책지’를 말한다.

27) 『度支準折』 紙地.
“冊紙 一卷 折價二兩五錢.”

28) 『度支準折』 紙地.
“簡壯紙 一卷 折價二兩五錢.”

29) 『度支準折』 紙地.
“衣紙 一卷 紙品大好紙 重二斤 … 各樣冊衣所用.”; “時政記紙 一貼 紙品大好紙 十張作一貼 … 春秋館日記所用.”

따라 문서지, 책지, 약봉지, 우산, 창호지, 도배지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度支準折』 「紙地」 ‘會減’에 기재된 책지의 용례³⁰⁾

명칭	용례
楮注紙	儀軌, 親鞫正書, 族譜廳式年設廳正案, 實置簿冊, 推鞫正書, 各處先生案
下品楮注紙	承政院日記, 議政府刑決合坐時正書, 隸習講冊, 殿講時冊, 各都監儀軌分上件冊, 侍講院日記, 注書日記, 內局日記, 內藥房日記, 庭廳時曆錄, 議政府六典曆錄, 備邊司曆錄, 曆錄, 藝文官形止案, 義禁府曆錄
厚白紙	供上置簿
白紙	承政院都使令置簿冊, 日記草冊, 日下記
草注紙	族譜廳正案

그 중 책지로 사용한 용례를 위의 <표 1>에 정리하였다. 楮注紙는 의궤, 親鞫과 推鞫할 때의 정서지,³¹⁾ 등록 명부, 치부책, 각 기관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적어놓은 先生案에 사용되었다. 下品楮注紙는 주로 일기류, 曆錄, 형지안, 隸習講冊, 殿講용 책, 분상건 의궤 등에 사용되었다. 厚白紙와 白紙는 치부책과 일기에, 草注紙는 正案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이상으로 『만기요람』과 『탁지준질』의 기록을 통해 권책지(저주지), 백지, 시정기지(대호지), 첩책지(초주지), 책지,³³⁾ 하품저주지, 후백지가 서적 간행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2 정조대 서적 간행에 사용된 책지

호학의 군주 정조는 서적의 편간을 매우 중시하였고, 여러 학자들을 동원하여 많은 서적을 편찬·간행하여 문예부흥기를 이루었다. 정조대의 서적 편찬·간행에 대해서는 『羣書標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군서표기』는 정조가 세손시절부터 직접 저술한 어제와 신하들에게 지시하여 편찬 또는 간행한 155종 3,991권의 서적에 대한 해제집이다.

본고에서는 정조대의 서적 간행에 사용된 책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서표기』에 수록된 간본³⁴⁾을

30) 진인성, “조선후기 冊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6), 17-18.

31) 親鞫은 의금부 관할의 推鞫의 하나로, 왕의 친림 하에 왕족이나 고위 관원의 중대한 반역 사건을 궐내의 특정 장소에서 추국하는 것을 말한다. 형방승지·의금부당상이 推案 작성과 정서를 맡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親鞫日記』(奎 12796-v.1-22)가 소장되어 있다.

32) 진인성(2016), 19.

33) 종이의 한 종류로서 책지를 말한다.

34) 『군서표기』에 저록된 어정서와 명찬서는 간본과 필사본을 합하여 155종이다. 본고에서는 간본을 대상으로 정조대 서적간행에 사용된 종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간본은 御定 1에 新訂資治通鑑綱目續編, 經書正文, 欽恤典則, 隸陳總方, 八字百選, 字恤典則. 御定 2에 奎章閣志, 文苑黼黻, 武藝圖譜通志, 武藝圖譜通志總譜, 奎章全韻, 人瑞錄, 朱書百選. 御定 3에 咸興本宮儀式, 永興本宮儀式, 整理儀軌通編, 史記英選, 陸奏約選, 五經百篇, 三禮手圈, 兩京手圈, 五子手圈, 陸稿手圈, 八家手圈, 杜律分韻, 陸律分韻, 太學恩杯詩集. 御定 4에 大學類義, 雅頌,

대상으로 정하였고,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을 통해 서적 간행 기록과 반사 기록을 살펴보았다. 『군서표기』에 수록된 간본은 총 70종으로, 그 가운데 간본 25종에 사용된 책지를 찾을 수 있었다. 반사 기록과 종이 명칭을 정리한 표는 [부록 1]에 실어놓았다.

기록을 살펴본 결과 『國朝寶鑑』, 『濬源系譜紀略』, 『字恤典則』, 『奎章閣志』, 『弘文館志』, 『大典通編』, 『宮園儀』, 『御定兵學通』, 『羹牆錄』, 『文苑黼黻』, 『咸興本宮儀式』, 『永興本宮儀式』, 『關東賓興錄』, 『御定人瑞錄』, 『御定朱書百選』, 『正始文程』, 『豐沛賓興錄』, 『李忠武公全書』, 『御定奎章全韻』, 『增修無冤錄諺解』, 『鄉禮合編』, 『園幸乙卯整理儀軌』, 『五經百篇』, 『春秋』, 『雅頌』, 『關西賓興錄』을 간행할 때 簡壯紙, 京造紙, 藁精紙, 卷冊紙, 唐紙, 毛面紙, 白綿紙, 白紙, 白休紙, 別白紙, 不剪紙, 粉唐紙, 雪白紙, 雪花紙, 嶺壯紙, 完白紙, 完壯紙, 完紙, 禮單紙, 壯紙, 冊紙, 天銀紙, 貼冊紙, 稍厚白紙, 太史紙 총 25종의 종이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종이를 서적 인출에 사용한 것은 御覽件, 進上件, 進獻件, 內入件, 奉安件, 分上件, 頒賜件 등 열람자나 보관하는 곳에 따라 책지를 구별하여 인쇄했기 때문이며, 서적의 위상은 지품에 따라 크게 좌우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2>에 25종의 종이를 재료와 생산지에 따라 상위명칭과 하위명칭으로 구분해보았다.

<표 2> 정조대 서적 간행에 사용된 책지

재료에 따른 분류	楮	백지	별백지	생산지에 따른 분류	조선	경조지	기타	백휴지, 부전지	
			설백지			완지			
			완백지			완백지			
			초후백지			완장지			
		장지	간장지			영장지			
			영장지			완장지			
			완장지			영장지			
		책지	권책지			중국			당지
			침책지						분당지
		桑	예단지			모면지			
	천은지		태사지						
	백면지								
	藁精	설화지							
		고정지							

杜陸千選. 命撰 1에 易學啓蒙集箋, 宮園儀, 明義錄, 續明義錄, 摛文院講義, 弘文館講義, 國朝寶鑑, 國朝寶鑑別編, 濬源系譜記略, 千歲歷, 弘文館志, 列朝羹牆錄, 大典通編, 兵學通, 兵學指南, 新法漏籌通義, 新法中星紀, 金忠壯遺事. 命撰 2에 訥齋集, 林忠愍公實紀, 瓊林聞喜錄, 嶠南賓興錄, 協吉通義, 關東賓興錄, 耽羅賓興錄, 增訂挹翠軒集, 李忠武公全書, 豐沛賓興錄, 正始文程, 春秋左氏傳, 增修無冤錄, 增修無冤錄諺解, 鄉禮合編, 五倫行實圖, 七政步法, 濟衆新編, 梁大司馬實紀, 關北賓興錄, 關西賓興錄, 同文彙考가 수록되어 있다.

서적을 인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종이는 白紙이다. 백지는 『자훈전칙』과 『규장각지』를 제외한 23종의 서적을 인출할 때 사용되었다. 백지는 다른 고급종이들에 비해 저렴하고 보편적인 종이로, 각 관원 등의 업무에 사용되며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백지는 진상건, 내입건, 반사건 등의 서적 인출에 두루 사용되었다.

백지로 간행한 『정시문정』(A),³⁶⁾ 『정시문정』(B),³⁷⁾ 『어정규장전운』(A)³⁸⁾를 실견한 결과, 1장의 두께는 0.07~0.08mm 정도이며 두께가 얇아 발무늬와 발끈폭 등이 잘 드러났다. 표면은 거친 편이고, 잡티나 불순물 등이 섞여 있다. 색상을 살펴보면 『정시문정』(A)는 黃變이 많이 되어 황색을 띠고 있었다. 『정시문정』(B), 『어정규장전운』(A)는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지만, 백면지와 장지로 만든 서적과 비교해보면 조금 어두운 빛을 띠며 황변이 더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別白紙는 품질이 아주 좋은 백지를 뜻한다. 별백지로 간행한 『춘추』는 도산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화양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雪白紙는 각읍과 향교에 보관하기 위한 『관동빈홍록』 인출에 사용되었다. 명칭이 雪花紙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종이를 표백할 때 눈에서 하는 雪晒 과정³⁹⁾을 거쳐서 붙여진 이름이거나 눈처럼 흰 종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完白紙는 전주 지역에서 만든 백지를 말하며 생산지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어정주서백선』의 내입건, 반사건과 『어정규장전운』의 반사건 간행에 사용되었다.

稍厚白紙는 『관서빈홍록』의 내입건과 반사건 인출에 사용되었는데, 초후백지의 특징에 대한 다른 문헌 기록이나 정보들은 찾기 어렵다. 초후백지로 인출한 적상산사고본 『관서빈홍록』⁴⁰⁾을 실견한 결과, 1장의 두께는 0.12mm 정도이며 발끈의 형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잡티나 불순물은 많지 않았고, 백지보다 표면이 부드러웠다. 색상도 백지보다 밝은 것을 확인하였다.

白綿紙는 백지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종이로, 13종의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다. 백면지는 봉안건, 진상건, 내입건, 반사건에 두루 사용되었고 그 중 반사건 인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백면지는 백지보다 좋은 품질의 종이이며, 뽕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⁴¹⁾ 백면지로 인출한 적상산사고본 『주서백선』⁴²⁾을 실견한 결과, 1장의 두께는 0.15mm로 두꺼웠으며 표면도 백지나 초후백지보

35) 손계영(2005), 70.

36) 崔壁 내사본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37) 赤裳山史庫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K4-301).

38) 申星模 내사본으로 수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9)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이를 만들 경우 표백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냇가에서 하는 것으로서 川晒라 하며, 또 하나는 눈에서 하는 방법으로서 雪晒라 하는 것이 그것이다. 雪晒의 과정은 정선영(2007. 3), 367-369 참조.

40)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K4-63).

41) 백면지와 같은 품질의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원료는 장섬유여야하며, 장섬유는 다향나무와 뽕나무, 삼베와 모시 등이 있다. 뽕나무는 섬유가 다향나무보다 가늘고 길다. 일반인이 보면 다향나무로 만든 종지와 뽕나무로 만든 종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정선영(2008), 440.

42)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K3-131).

다 훨씬 매끄러웠다. 잡티나 불순물도 거의 없고 변색도 거의 되지 않아서 색상도 밝은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었다.

壯紙는 백면지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주로 내입건과 반사건의 책지로 쓰였으며 『咸興本宮儀式』과 『永興本宮儀式』의 봉안건 인출에도 사용하였다.

簡壯紙는 전주·남원에서 제조되는 종이⁴³⁾로, 서간문 작성에 사용하여 간장지라고 불렸다. 『탁지준절』에서 간장지의 折價는 1권당 2兩 5錢⁴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저주지 1권의 절가인 2兩⁴⁵⁾보다 높은 것으로, 아마도 저주지보다 좋은 품질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嶺壯紙와 完壯紙는 장지와 같은 종류로 생산지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며, 『어정규장전운』의 대본과 소본 인출에 사용되었다. 영장지로 인출한 적상산사고본 『어정규장전운』⁴⁶⁾ 대본을 실견한 결과, 두껍고 얇은 종이 서로 섞여 있었으며 1장의 두께는 0.09~0.15mm 정도로 나타났다. 표면은 백지로 인출한 『어정규장전운』(A)⁴⁷⁾보다 매끄럽고, 잡티나 불순물 또한 그보다는 덜 보이는 편이었다. 색상은 변색이 많이 되지 않아 상아색을 띠고 있었다.

卷冊紙는 진상건과 반사건의 인출에 사용되었고, 봉안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초주지와 밀도 차이나 절가 차이 등을 볼 때 첩책지보다 품질이 낮은 종이임을 알 수 있다.

貼冊紙는 대부분 진상건과 봉안건의 인출에 쓰였고, 『궁원의』 인출 시에만 반사건 책지로 사용되었다.

雪花紙는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만들어진 종이⁴⁸⁾로, 뽕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⁴⁹⁾ 『규장각지』의 내입건, 『함흥본궁의식』과 『영흥본궁의식』의 봉안건 인출에 사용되었다. 내입건과 봉안건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품질이 첩책지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권의 절가가 3兩⁵⁰⁾으로, 1권의 절가가 2냥 5전인 간장지보다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⁵¹⁾

43)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四 東國紙品.

“宋人論諸國紙品 … 全州南原之扇子紙簡壯紙注油紙油苞 實天下之所稀有 …”

44) 『度支準折』 紙地.

“簡壯紙 一卷 價錢二兩五錢”

45) 『度支準折』 紙地.

“卷冊紙 一卷 … 一張折價一錢”

이를 통해 권책지 한 장의 절가가 1전임을 알 수 있다. 종이의 수량을 세는 단위인 1권은 20장을 뜻하며, 따라서 권책지 1권의 절가는 2냥이다.

46)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K1-194).

47) 申星模 내사본으로 수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8)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四 東國紙品.

“宋人論諸國紙品 必以高麗紙爲上 此時見當時貢幣之紙而云然也 若今造紙署之咨文紙 平康之雪花紙 …”

49) 설화지의 원료와 특성에 대한 것은 정선영, “雪花紙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2007. 3) 참조.

50) 『度支準折』 紙地.

“雪花紙 一卷 長二尺二寸 廣一尺一寸 價錢三兩”

51) 『度支準折』 紙地.

“簡壯紙 一卷 價錢二兩五錢”

藁精紙는 벗짚, 보릿짚, 귀리짚 등 벼과의 몇 가지 단섬유 식물과 닳나무 등의 장섬유와 혼합해서 만들었고, 단섬유가 혼합되었으므로 비교적 약해서 고급종이에 속하지는 않았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거의 정기적으로 각도에서 책지로 거두어들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에 비하면 조선후기에는 고정지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으며 실물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이다.⁵²⁾ 이처럼 고정지는 정조대에 간행한 25종의 서적 중 『문원보불』의 인출에만 사용되었다.

天銀紙는 『규장각지』와 『어정주서백선』의 내입건과 반사건의 인출에 사용되었다. 서적 인출에 사용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품질이나 산지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천은지로 인출하여 반사한 尹曠 내사본 『규장각지』⁵³⁾를 실견한 결과, 1장의 두께는 0.08mm 정도로 백지와 비슷한 두께였다. 두께는 백지와 비슷하지만 표면은 백지보다 부드러운 것으로 볼 때, 제조 과정에서 백지보다 도침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60배율 현미경 렌즈로 확인한 결과 사용된 섬유는 백지보다 조금 더 가늘고, 더 뭉쳐있는 편이었다. 변색 또한 많이 되지 않아 백지보다 밝은 색을 띠었다. 잡티나 불순물 등은 백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白休紙는 還紙로 옛 종이를 재생하여 만든 종이거나 혹은 사용된 종이의 뒷면에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⁵⁴⁾ 『자훈전칙』의 반사건 인출에 사용되었다.

정조대에는 서적을 간행하는 책지로 조선 종이 뿐만 아니라 중국 종이인 唐紙, 毛面紙, 粉唐紙, 太史紙를 사용한 것도 살펴볼 수 있다.

唐紙는 『園幸乙卯整理儀軌』의 진상건, 내입건, 반사건의 책지로 사용되었다.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에게 바치는 『원행음묘정리의궤』⁵⁵⁾에도 당지를 사용한 것을 보면 최소한 어람건에 사용하는 초주지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품질의 종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粉唐紙는 『문원보불』과 『정시문정』의 내입건과 반사건에 사용되었다. 西庫와 內閣에 반사하는 용도였으며, 1권의 절가는 4兩⁵⁶⁾으로 품질이 좋은 고급 종으로 보인다.

毛面紙와 太史紙는 『문원보불』, 『정시문정』, 『어정인서록』, 『풍패빈흥록』, 『어정규장전운』의 내입건과 반사건 인출에 사용되었다. 『豹菴稿』에서 모면지와 태사지의 품질을 설명하였는데, 모두 담황색으로 연해서 찢어지기가 쉽지만 환하고 보드랍다고 하였다. 또한 하얀색도 있지만 이는 흰 물감으로 물들인 듯 하고 매우 약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좀이 잘 먹는다⁵⁷⁾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52) 정선영(2007. 12), 49.

53)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고서(I) 353.109).

54) 정선영(1985), 45.

55) 『日省錄』 정조21년 3월 24일條.

“開印于鑄字所敎曰 整理儀軌 唐紙八件 一件慈宮內入 五件內入 西庫二件 …”

56) 『度支準折』 紙地.

“粉唐紙 一卷 長二尺一寸 廣一尺一寸 價錢四兩”

57) 『豹菴稿』 卷之五 題跋 紙.

“中國之紙 或以竹或以藤皮 或以桑皮 或以麻而不專用楮也. 今所謂毛邊紙太史連紙 皆作淡黃色而脆而易裂 只瑩細柔軟爲可愛 又有粉白者 而似以白汁染成 亦甚脆不能耐久 又易蠹也. 我國只以楮作紙色 本性且韌 但造法

품질이 좋은 종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 정조대에 간행한 서적의 반사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한 종의 서적을 인출할 때는 대부분 2종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였고, 많게는 8종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문원보불』과 『어정규장전운』의 인출에는 8종을 사용하였다. 『문원보불』은 서적의 건수에 비해 다양한 종이를 사용하여 인출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는 모든 공문서의 서식과 그 종류 및 역대 왕조의 기록들을 담은 내용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어정규장전운』의 경우에는 대본과 소본으로 인출하였고, 반사한 서적의 건수가 1,000건이 훨씬 넘는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종이를 사용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3. 冊紙의 규격

종이의 크기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며 점차 변화되어 왔다. 조선시대 종이의 크기는 전통시대 종이 제조 방식의 특성상 종이를 뜨는 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발의 종류는 초지 방식과 발, 발틀의 형태 그리고 제작 과정에 따라서 크게 외발, 장판지발, 쌍발로 나누어지며 조선시대에는 주로 외발로 종이를 제작하였다. 외발은 장호지 3尺2寸×2寸, 책지 2尺2寸×1尺5寸 등의 크기로 구분하고 용도, 사용처에 따라 발의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한다.⁵⁸⁾ 오늘날은 소발 한지의 경우 630×930mm, 대발 한지의 경우 750×1440mm 크기로 제작되고 있다.⁵⁹⁾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지금보다 발의 크기가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제가는 『北學議』에서 우리나라 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종이를 뜨는 발에 일정한 치수가 없다. 그러므로 책 종이를 절단할 때 半截하면 너무 커서 나머지는 모두 끊어 버려야 하고 3번 자르면 너무 짧아서 글자 밀이 없어지는 폐단이 있다. 또 八道 종이의 長短이 모두 같지 않아서 이 때문에 허비하는 종이가 얼마인지 모른다.⁶⁰⁾

박제가는 八道の 종이 크기가 모두 달라 사용할 때 종이의 소비가 많음을 알고, 이는 모두 비규격에서 오는 폐단이므로 길이를 맞추어 만들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종이의 비규격화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점차 규격화의 과정을 거친다.⁶¹⁾ 조선후기에는 납입된 종이의 크기가 달라 소모되는 종이의 양을 줄이기 위해 크기는 물론 무게까지 명문화하게 된 것이다. 이는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度支準折』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蠶粗 不能瑩細 此爲少遜於華品耳 中國人只見其堅韌 誤認以繭造 每有高麗繭之語 然皆是楮造 實非繭也.”

58) 이승철,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 (서울: 현암사, 2012), 115-116.

59) 최영숙, 이주은, 『한눈에 보는 한지』 (서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28.

60) 朴齊家, 『北學議』 內篇 紙;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서울: 민속원, 2006), 208 재인용.

61) 김삼기(2006), 208.

3.1 법전에 기재된 종이의 규격

조선시대의 법전에 종이의 크기와 중량이 기재된 것은 1746년에 편찬된 『續大典』부터이다. 『속대전』 「工典」 雜令條에는 궁궐 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쓰이는 종이를 일정한 규격을 정해놓았으며, 楮注紙와 楮常紙의 두 종류의 종이 크기가 기재되어 있다.

궁궐 내외의 여러 상급기관에서 쓰이는 지지(紙地)는 장홍고, 풍저창이 매달 다음의 일정한 규격대로 이를 진배(進排)하게 하며 일정한 규격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원은 파직하고 하리(下吏)는 치죄(治罪)한다. 楮注紙는 길이 1尺6寸, 너비 1尺4寸이며 楮常紙는 길이 1尺1寸, 너비 1尺으로 한다.⁶²⁾

저주지의 크기는 1尺6寸×1尺4寸, 저상지의 크기는 1尺1寸×1尺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책지의 외발 크기인 2尺2寸×1尺5寸보다 작은 크기이다.

1785년에 편찬된 『大典通編』에는 『속대전』보다 많은 종류의 종이 규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1865년 『大典會通』까지 종이의 규격은 동일하다. 『대전통편』 「工典」 雜令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궁궐 내외의 여러 상급기관에서 쓰이는 지지(紙地)는 장홍고, 풍저창이 매달 다음의 일정한 규격대로 이를 진배(進排)하게 하며 일정한 규격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원은 파직하고 하리(下吏)는 치죄(治罪)한다. 楮注紙는 길이 1尺6寸, 너비 1尺4寸이며 楮常紙는 길이 1尺1寸, 너비 1尺으로 한다.

【增】 啓目紙나 草注紙는 1卷의 중량을 11兩 이상으로 하고 次草注紙의 1卷의 중량은 9兩 이상, 公事紙의 중량은 6兩 이상, 官教紙의 중량은 4斤 이상, 上品搗鍊紙의 중량은 6斤 이상, 搗鍊楮注紙의 중량은 2斤 이상, 大好紙와 白綿紙는 길이 2尺4寸5分, 너비 1尺7寸5分이며 그 중량은 3斤14兩으로 하며 小好紙는 길이 2尺2寸5分, 너비가 1尺5寸5分이며 그 중량은 2斤5兩이다.⁶³⁾

『대전통편』에는 楮注紙와 楮常紙의 규격 이외에 추가로 啓目紙, 草注紙, 次草注紙, 公事紙, 官教紙, 上品搗鍊紙, 搗鍊楮注紙, 大好紙, 白綿紙, 小好紙의 규격을 기재하였다. 『속대전』에서 종이의 크기만 기재했던 것과 달리 『대전통편』에서는 계목지, 초주지, 차초주지, 공사지, 관교지, 상품도련지, 도련저주지의 1권당 중량을 정해놓았다. 상품도련지가 6斤으로 가장 무겁고, 공사지가 6兩으로 가장 가볍다. 이를 통해 크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품도련지는 다른 종이에 비해 가장 두껍고 원료가 많이 들어간 종이이며, 공사지는 搗砧을 많이 하여 얇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호지, 백면지, 소호지는 크기와 무게 둘 다 기재하였다. 대호지와 백면지는 크기와 무게가 동일하다. 크기는 2尺4寸5分×1尺7寸5分이고, 무게는 3斤14兩이다. 소호지의 크기는 2尺2寸5分×1尺5寸5分, 무게는 2斤5兩으로, 책지의 외발 크기인 2尺2寸×1尺5寸과 가장 비슷한 크기이다.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의 종이 규격에서 중량이 기재된 것은 10종이고, 크기가 기재된 것은 5종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제지방식에 따라 종이의 크기보다는 무게를 더 중요시 한 것으로 보인다.⁶⁴⁾

62) 『續大典』 工典 雜令條.

63) 『大典通編』 工典 雜令條.

앞서 서적 간행 용례를 살펴본 결과 정조대에 책지로 가장 많이 사용된 종이는 白紙였다. 하지만 법전에는 백지의 규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일성록』의 기사를 통해 백지의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값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추는 두 가지 외에는 실로 변통할 길이 없었는데 값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하여 부득이 품질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이 바친 건본은 9냥종이었는데 9냥종은 백지(白紙)나 다품이 없어서 중량을 배로 올려 18냥종으로 하였는데도 얇기가 오히려 이러하니, 막중한 문서를 출납할 때 보기에 참으로 매우 황송합니다. …⁶⁵⁾

위의 기사를 통해 보면 백지의 무게는 9兩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차초주지의 무게와 같고 초주지의 무게인 11兩보다는 가벼운 것을 알 수 있다.

3.2 『탁지준절』에 기재된 책지의 규격

앞에서 살펴본 정조대 서적 간행에 사용한 책지 25종 가운데 『탁지준절』을 통해 규격을 알 수 있는 종이는 藁精紙, 卷冊紙(楮注紙), 毛面紙(毛邊紙), 粉唐紙, 白綿紙, 白休紙, 白紙(楮常注紙), 雪花紙, 貼冊紙(草注紙)가 있다.

<표 3> 『탁지준절』에 기재되어 있는 책지의 규격

번호	명칭	크기(1張)		무게(1卷)
		長	廣	
1	卷冊紙(楮注紙)	2尺2寸5分	1尺7寸	
2	白綿紙	2尺2寸5分	1尺7寸	
3	貼冊紙(草注紙)	2尺2寸	1尺5寸	
4	雪花紙	2尺2寸	1尺1寸	
5	厚白紙	2尺1寸5分	1尺4寸	
6	粉唐紙	2尺1寸	1尺1寸	
7	毛面紙(毛邊紙)	2尺	1尺	
8	白紙(楮常注紙)	1尺6寸5分	1尺	
9	藁精紙	1尺5寸	1尺	
10	白休紙			10兩

『탁지준절』에 기재된 서적 간행용 종이의 크기를 살펴본 결과 세로 길이는 1尺5寸~2尺4寸, 가로 길이는 1尺~1尺7寸이었다. 크기가 가장 큰 종이는 권책지(저주지)와 백면지이며, 제일 작은 종이는

64) 예전에는 종이를 무게로 달아 팔았는데 흠가루를 넣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 좋은 값이 쳐졌다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지장』 (서울: 민속원, 2006), 156.

65) 『日省錄』 정조9년 12월 8일條.

“… 其時戶判則果持難 而添價與紙品兩件事外 實無變通之道 添價則似涉重難 故不得已低品 而渠輩所納見樣 則乃是九兩重 九兩重無異白紙 故倍其重爲十八兩 而薄劣猶如此 莫重文書 出納之際 所見誠甚惶悚矣 …”

고정지이다.

세로 길이가 2尺 이상인 종이는 권책지, 백면지, 첩책지, 설화지, 분당지, 모면지이다. 권책지와 백면지의 크기는 2尺2寸5分×1尺7寸으로 동일하다. 첩책지의 크기는 2尺2寸×1尺5寸이다. 설화지의 크기는 2尺2寸×1尺1寸으로, 첩책지와 세로 길이는 같지만 가로 길이가 조금 짧다. 후백지의 크기는 2尺1寸5分×1尺4寸촌으로, 세로의 길이는 설화지와 비슷하지만 가로의 넓이는 첩책지와 비슷하다. 분당지의 크기는 2尺1寸×1尺1寸이다. 모면지의 크기는 2尺×1尺이다. 설화지와 모면지의 세로와 가로의 길이 비율은 2:1인데, 이러한 크기 비율을 통해 보면 책지보다는 서화용 종이로 더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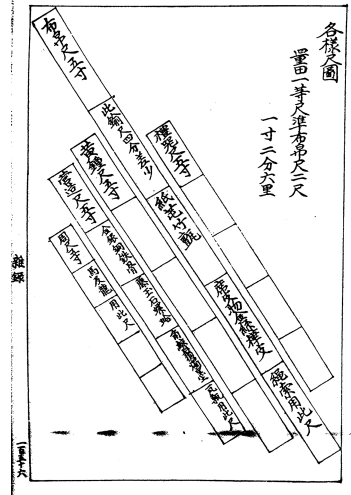
세로 길이가 2尺 이하인 종이는 백지와 고정지가 있다. 백지의 크기는 1尺6寸5分×1尺이다. 고정지의 크기는 1尺5寸×1尺이다.

백휴지는 크기 대신 무게가 기재되어 있으며, 1권의 무게는 10兩이다.

3.3 인출 서적을 통한 冊紙의 규격 검토

앞서 살펴본 책지의 규격을 실제 간행된 서적의 크기와 비교하여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도량형으로 기재된 크기 대신 현대의 미터법으로 환산한 크기를 알아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周尺,⁶⁶⁾ 營造尺,⁶⁷⁾ 黃鐘尺,⁶⁸⁾ 布帛尺,⁶⁹⁾ 禮器尺⁷⁰⁾ 등 측정하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尺度를 사용하였다. 『탁지준절』의 『雜錄』에는 各樣尺度를 그려놓아서 책의 종류별 크기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이의 규격을 측량할 때 布帛尺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66) 주척은 주로 측우기 등 천측기구를 측정하거나, 사대부들이 사당의 神主를 만들 때 사용하며, 그밖에 도로의 거리수, 묘지의 영역, 훈련관 교정의 거리수, 활터의 거리수를 잴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제거나 시체를 검시할 때도 사용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도량형』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7), 14.
- 67) 영조척은 원래 曲尺, 大尺, 今尺 등으로 불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수들이 사용하였고 가옥과 성벽, 봉화, 社稷壇 등의 단, 山陵과 陵室 등을 건축하거나, 되, 말 등의 量器를 만들 때 표준척으로 사용하였다. 영조척은 주척과 예기척보다는 약간 길며, 포백척보다는 약간 짧다. T자형의 척도로, 木尺이라고도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편(1997), 27.
- 68) 각종 악기의 제조와 음률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표준자다. 1425년(세종 7)에 박연이 해주산 검은 기장 100알을 나란히 쌓아 그 길이를 황종척 1尺으로 정하였다. 즉 기장 한 알의 길이를 1分으로 하고 10알을 쌓아 1寸으로 하여 9寸을 황종의 길이로 삼았다. 여기에 1寸을 더하여 황종척 1尺으로 삼았다. 국립민속박물관 편(1997), 13.
- 69) 포목의 무역과 의복을 만드는데 쓰는 자로, 針尺이라고도 한다. 포백척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온 자로 지방에 따라, 또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길이가 일정치 않았다. 1430년(세종 12)에 다른 도량형기는 모두 교정되었으나 포백척만은 교정되지 않아서 1431년(세종 13)에 각 관으로 하여금 竹尺을 만들어 京市署로 보내어 교정하게 하였다. 1446년(세종 28)에는 새로운 포백척을 만들어 전국에 나누어 주었고, 1694년(숙종 20)에는 戶曹, 工曹로 하여금 주척, 영조척과 함께 포백척을 구리로 만들거나 돌에 새기도록 하였다. 포백척은 絹尺, 木棉尺, 麻布尺, 苧布尺, 綿紬尺이라 부르는데, 각기 길이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컨대 견척은 목면척보다, 목면척은 마포척보다 짧다. 국립민속박물관 편(1997), 34.
- 70) 종묘 및 문묘 등의 각종 예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자로, 예기척이라고도 한다. 또한 命婦의 印信을 제작하는 데도 쓰여 印用尺이라고도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편(1997), 25.



<그림 3> 『度支準折』 「雜錄」 各樣尺度

<표 4> 『탁지준절』의 각양척도에 기재된 尺의 길이

	周尺	營造尺	黃鐘尺	布帛尺	禮器尺
1尺	18.5cm	28.6cm	32.6cm	47.0cm	2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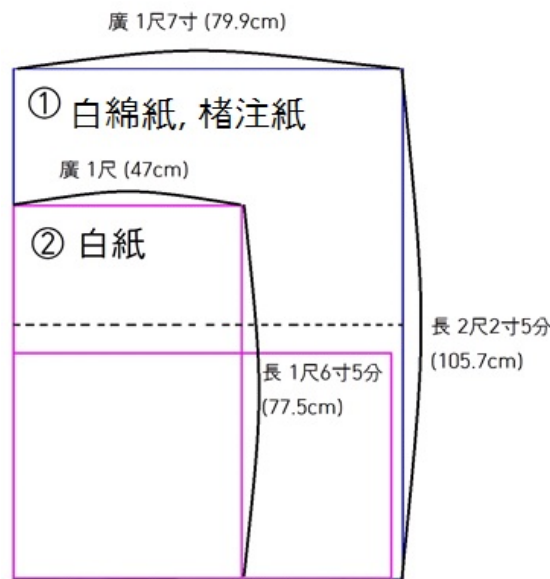
『탁지준절』에서 사용된 포백척은 47cm로, 이 수치는 각양척도에 나와 있는 실제크기의 자에서 산출하였으며 『經國大典』 記錄尺度·영조 26년 改尺度·순조 20년 厘正周尺時尺度 등의 46.8cm와 유사하다.⁷¹⁾ 『탁지준절』의 『지지』에 나타나는 책지의 규격을 포백척의 크기에 따라 cm의 단위로 환산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cm로 환산한 책지의 규격

번호	명칭	크기(1張)			
		『탁지준절』에 기재된 크기		cm로 환산한 크기	
		세로	가로	세로	가로
1	卷冊紙(楮注紙)	2尺2寸5分	1尺7寸	105.7	79.9
2	白綿紙	2尺2寸5分	1尺7寸	105.7	79.9
3	貼冊紙(草注紙)	2尺2寸	1尺5寸	103.4	70.5
4	雪花紙	2尺2寸	1尺1寸	103.4	51.7
5	厚白紙	2尺1寸	1尺4寸	98.7	65.8
6	粉唐紙	2尺1寸	1尺1寸	98.7	51.7
7	毛面紙(毛邊紙)	2尺	1尺	94.0	47.0
8	白紙(楮常注紙)	1尺6寸5分	1尺	77.5	47.0
9	藁精紙	1尺5寸	1尺	70.5	47.0

71) 조효숙, 이은진, “『度支準折』에 기록된 조선 말기 平絹織物에 관한 研究,” 『服飾』 53호(2003. 8), 128.

책지의 크기를 환산한 결과 권책지와 백면지는 105.7×79.9cm, 첩책지는 103.4×70.5cm, 설화지는 103.4×51.7cm, 후백지는 98.7×65.8cm, 분당지는 98.7×51.7cm, 모면지는 94.0×47.0cm, 백지는 77.5×47.0cm, 고정지는 70.5×47.0cm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에 백면지와 백지의 크기를 도식화해 보았다. 백면지가 백지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백면지와 백지의 크기 비교

<표 6> 현대의 종이 크기

용지 명칭	1장의 크기(cm)			
	4·6판 계열		국판 계열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전지	109.0	78.8	93.9	63.6
2절지	78.8	54.5	63.6	46.8
4절지	54.5	39.4	46.8	31.8

현대에는 종이의 치수를 4·6판 계열과 국판 계열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인쇄 전의 원지 크기는 4·6판 계열의 전지가 109.0×78.8cm, 국판 계열 전지가 93.9×63.6cm이고 4·6판 계열의 2절지는 78.8×54.5cm, 국판 계열 2절지는 63.6×46.8cm이다. 현대의 종이 크기와 조선시대의 종이 크기를 비교해보면 백면지(105.7×79.9cm)는 4·6판 계열의 전지(109.0×78.8cm)와 비슷하며 백지(77.5×47.0cm)는 4·6판 계열의 2절지(78.8×54.5cm)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탁지준절』을 통해 살펴본 백면지와 백지의 규격을 검토해보기 위해 서적 반사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있고, 그 기록과 일치하는 실물을 대상으로 정조대에 백면지와 백지로 간행된 서적의 크기를 조사해보았다.

<표 7> 백면지와 백지로 간행된 서적의 크기

번호	서명	반사 시기	수사자명	종이 종류	크기(cm)	소장처
1	璿源系譜紀略	1783.04.00	吳載紹	白紙	36.0×25.0	수원박물관
2	字恤典則	1783.11.12	李時秀	白綿紙	32.6×21.6	규장각
			洪仁浩	白綿紙	35.5×22.5	규장각
			禮曹	白綿紙	32.6×21.2	장서각
			李彥熙	白綿紙	32.5×21.4	규장각
3	奎章閣志	1784.06.12	五臺山	白綿紙	34.8×22.5	규장각
			鼎足山	白綿紙	34.8×22.5	규장각
			太白山	白綿紙	34.8×22.5	규장각
4	弘文館志	1784.06.12	五臺山	白綿紙	36.5×24.0	규장각
			鼎足山	白綿紙	36.5×24.0	규장각
			權濟	白紙	34.5×22.0	규장각
			尹嘯	白紙	34.6×22.0	연세대
			趙琰	白紙	34.6×22.0	연세대
5	文苑黼黻	1787.05.22	李性源	白紙	31.7×19.7	연세대
			赤裳山	白紙	31.6×19.6	장서각
			五臺山	白紙	31.6×19.7	규장각
			太白山	白紙	31.6×19.7	규장각
6	御定人瑞錄	1794.09.00	五臺山	白紙	32.2×19.2	규장각
			太白山	白紙	32.2×19.2	규장각
			弘文館	白紙	32.2×19.2	규장각
7	朱書百選	1794.12.25	五臺山	白綿紙	36.0×22.3	규장각
			赤裳山	白綿紙	35.7×23.1	장서각
			鼎足山	白綿紙	36.0×22.3	규장각
			太白山	白綿紙	36.0×22.3	규장각
8	正始文程	1795.04.18	赤裳山	白紙	30.8×18.6	장서각
			李書九	白紙	30.8×18.7	연세대
			崔璧	白紙	30.8×18.7	수원화성박물관
			朴大和	白紙	31.0×18.6	영남대
			五臺山	白紙	31.6×19.6	규장각
			鼎足山	白紙	31.6×19.6	규장각
			太白山	白紙	31.6×19.6	규장각
			弘文館	白紙	31.6×19.6	규장각
9	豐沛賓興錄	1795.05.00	五臺山	白紙	30.3×18.8	규장각
			赤裳山	白紙	30.3×18.7	장서각
			鼎足山	白紙	30.3×18.8	규장각
			太白山	白紙	30.3×18.8	규장각
			弘文館	白紙	30.3×18.8	규장각
			閔鍾顯	白紙	30.5×18.8	동양문고
			李家煥	白紙	30.3×18.9	연청도서관
10	御定奎章全韻	1796.08.00	申星模	白紙	32.1×21.0	수원박물관
11	鄉禮合編	1797.06.00	五臺山	白紙	36.7×23.5	규장각
			赤裳山	白紙	34.6×22.2	장서각
			鼎足山	白紙	36.7×23.5	규장각
			太白山	白紙	36.7×23.5	규장각
12	園幸乙卯整理儀軌	1798.04.00	赤裳山	白紙	34.3×17.2	장서각
			五臺山	白紙	33.8×21.8	규장각

위의 <표 7>은 정조대의 서적 반사 기록과 일치하는 유물을 대상으로 서적의 크기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백면지로 인출한 서적의 크기는 28.9~36.5×20.0~24.0cm이며, 백지로 인출한 서적의 크기는 30.8~36.7×17.2~23.5cm로 나타난다.⁷²⁾

이러한 서적의 크기는 백지 1장을 2절로 나눠서 만들 수 있는 서적의 최대 크기인 38.7×23.5cm와 백면지 1장을 4절로 나눠서 만들 수 있는 서적의 최대 크기인 39.9×26.4cm를 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문헌에 기재된 백면지와 백지의 규격과 실제 간행된 서적의 크기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책판으로 서적을 인출할 경우, 앞뒤로 새겨진 목판 1매를 백지 1장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책판목록에 기재된 내용 중 책판의 수량과 容入紙 수량을 비교함으로써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의 인쇄문화를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서적의 간행에 쓰이는 종지와 용도,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조대의 서적 간행 기록은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자세히 남아 있는데, 서적 반사 기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책지로 簡壯紙, 京造紙, 藁精紙, 卷冊紙, 唐紙, 毛面紙, 白綿紙, 白紙, 白休紙, 別白紙, 不剪紙, 粉唐紙, 雪白紙, 雪花紙, 嶺壯紙, 完白紙, 完壯紙, 完紙, 禮單紙, 壯紙, 冊紙, 天銀紙, 貼冊紙, 稍厚白紙, 太史紙 총 25종의 종지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종의 서적을 인출할 때는 대부분 2종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였고, 많게는 8종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그 중 서적 인출에 가장 많이 사용한 종이는 백지와 백면지였다. 이처럼 다양한 종이를 서적 인출에 사용한 것은 御覽件, 進上件, 進獻件, 內入件, 奉安件, 分上件, 頒賜件 등 열람자나 보관하는 곳에 따라 책지를 구별하여 인쇄했기 때문이며, 서적의 위상은 지품에 따라 크게 좌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이의 크기는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 편찬된 『탁지준절』에 자세히 남아있다. 『탁지준절』에 기재된 백면지의 크기는 2尺2寸5分×1尺7寸이고, 백지의 크기는 1尺6寸5分×1尺이다. 이를 포백적의 크기로 환산한 결과 백면지는 105.7×79.9cm이고, 백지는 77.5×47.0cm로 나타났다. 현대의 종지와 비교해보면 백면지는 4·6판 계열의 전지(109.0×78.8cm)와 비슷하며 백지는 4·6판 계열의 2절지(78.8×54.5cm)와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 기록을 통해 살펴본 책지의 규격을 검토하기 위해 정조대의 서적 반사 기록과

72) <표 7>의 서적 크기는 서적 반사 기록과 일치하는 유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대부분 신하들에게 반사한 내사본이거나, 史庫에 봉안한 서적의 크기이다. 진상건이나 내입건 서적의 크기는 이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경우 백면지 1장을 4등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치하는 실제 유물을 대상으로 서적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면지로 인출한 서적의 크기는 28.9~36.5×20.0~24.0cm이며, 백지로 인출한 서적의 크기는 30.8~36.7×17.2~23.5cm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적의 크기는 백지 1장을 2절하거나, 백면지 1장을 4절해서 인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백면지와 백지의 규격이 실제 간행된 서적의 크기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 어람건, 진상건, 봉안건, 반사건 등 용도별 서적 크기의 평균값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연구도 실시하고자 한다.

정조대에 간행한 서적은 다른 시대의 서적들에 비해 반사 기록이 매우 자세하게 남아있으며, 기록과 일치하는 실물이 각 기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반사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서적들을 대상으로 책지의 성분 분석을 시도한다면 조선후기의 종이에 더욱 실증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기 이전에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된 종이를 문헌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와 일치하는 서적들의 현 소장처를 정리한 것에 작은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원문자료

- 『大典通編』
- 『續大典』
- 『承政院日記』
- 『日省錄』
- 『林園經濟志』
- 『度支準折』
- 『豹菴稿』

2. 연구논문 및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도량형』.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지장』. 서울: 민속원, 2006.
-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서울: 민속원, 2006.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신편 국역 재용 군정 만기요람 1』.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신편 국역 재용 군정 만기요람 2』.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박상진. “목판 및 종이(韓紙)의 재질 분석.” 『국학연구』 제2집(2003. 6). 301-325.
- 손계영.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5.

- 손계영. “조선시대 草注紙와 楮注紙.” 『서지학보』 29호(2005). 161-179.
- 신승운. “『弘齋全書』와 『羣書標記』의 編纂과 刊行에 關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12). 371-404.
- 육영정. “조선시대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 均字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7집(2009. 9). 71-94.
- 유새롬. “외규장각 의궤 장황의 특징.”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4. 36-67.
- 이승철.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 서울: 현암사, 2012.
- 이재준. “朝鮮時代 內賜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 이현창. “『度支準折』 諸本の 解題와 經濟情報.” 『古文書研究』 제31호(2007. 8). 193-227.
- 정선영. “조선초기 冊紙에 관한 연구: 서적의 刊行年代 推定을 위한 一試圖.”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 정선영. “桑紙의 보존성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제4권(2004. 12). 1-10.
- 정선영. “雪花紙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363-373.
- 정선영. “藁精紙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8집(2007. 12). 47-67.
- 정선영. “白綿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12). 427-451.
- 조계영.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潢과 保存 研究 - 『濔源系譜記略』과 『國朝寶鑑』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 조계영. “봉안 서책과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4.
- 조계영. “조선 후기 중국서책의 수용과 형태 인식.”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 서울: 소명, 2014. 9-67.
- 조형진. “古書印出用 冊紙의 實驗的 研究.” 『서지학연구』 제27집(2004. 6). 63-89.
- 조효숙, 이은진. “『度支準折』에 기록된 조선 말기 平絹織物에 관한 研究.” 『服飾』 53호(2003. 8). 125-139.
- 진인성. “조선후기 冊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6.
- 천주현. “외규장각 의궤 책지의 특성.”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4. 116-137.
- 최영숙, 이주은. 『한눈에 보는 한지』. 서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부록 1] 정조대 서적 간행에 사용한 종이와 배포 내역

번호	반사 연도	서명	종이 명칭	배포 내역	출전
1	1782년 (정조 6)	『國朝寶鑑』	貼冊紙	진상건 3건	『日省錄』 1782년 4월 29일, 7월 14일 기사.
			卷冊紙	진상건 5건	
			白綿紙	진상건 22건 반사건 50건	
			白紙	진상건 20건 반사건 50건	
2	1783년 (정조 7)	『璿源系譜紀略』	白綿紙	내입건 1건 반사건 48건	『日省錄』 1783년 4월 8일 기사.
			白紙	내입건 2건 반사건 49건	
3	1783년 (정조 7)	『字恤典則』	白綿紙	반사건 1439건	『日省錄』 1783년 11월 12일 기사.
			白休紙	반사건 1139건	
4	1784년 (정조 8)	『奎章閣志』	白綿紙	내입건 51건 반사건 149건	『日省錄』 1784년 6월 12일 기사.
			天銀紙	내입건 12건 반사건 208건	
			簡壯紙	내입건 14건 반사건 5건	
			雪花紙	내입건 2건	
			冊紙	내입건 14건 반사건 6건	
5	1784년 (정조 8)	『弘文館志』	白綿紙	내입건 3건 반사건 247건	『日省錄』 1784년 6월 12일 기사.
			白紙	내입건 9건 반사건 101건	
6	1785년 (정조 9)	『大典通編』	貼冊紙	진상건 30건	『日省錄』 1785년 6월 14일 기사.
			卷冊紙	진상건 50건 반사건 10건	
			白綿紙	진상건 10건 반사건 30건	
			白紙	진상건 20건 반사건 70건	
7	1785년 (정조 9)	『宮園儀』	貼冊紙	봉안건 2건 반사건 28건	『宮園儀監印廳儀軌』
			卷冊紙	반사건 50건	
			白綿紙	진상건 10건 반사건 10건	
			白紙	진상건 10건 반사건 10건	
8	1785년 (정조 9)	『御定兵學通』	壯紙	반사건 30건	『日省錄』 1785년 9월 11일 기사.
			白紙	반사건 60건	
9	1786년 (정조 10)	『堯牆錄』	貼冊紙	진상건 10건	『承政院日記』 1786년 2월 29일 기사.
			卷冊紙	진상건 20건 반사건 15건	
			白紙	진상건 30건 반사건 30건	

번호	반사 연도	서명	종이 명칭	배포 내역	출전	
10	1787년 (정조 11)	『文苑黼黻』	白綿紙	내입건 2건 반사건 3건	『日省錄』 1787년 5월 22일 기사.	
			完紙	내입건 1건		
			冊紙	내입건 1건 반사건 1건		
			藥精紙	내입건 2건 반사건 1건		
			白紙	내입건 10건 반사건 90건		
			중국지	粉唐紙		내입건 1건 반사건 1건
				毛面紙		내입건 1건 반사건 1건
太史紙	내입건 1건					
11	1794년 (정조 18)	『咸興本宮儀式』, 『永興本宮儀式』	雪花紙	봉안건 1건	『日省錄』 1794년 5월 22일 기사.	
			壯紙	내입건 1건 봉안건 1건		
			白紙	내입건 8건 봉안건 15건 반사건 7건		
	1796년 (정조 20)		壯紙	내입건 8건 반사건 9건	『日省錄』 1796년 9월 21일 기사.	
			白紙	내입건 19건 반사건 23건		
12	1794년 (정조 18)	『關東賓興錄』	雪白紙	반사건	『日省錄』 1794년 6월 20일 기사.	
			白紙	반사건		
13	1794년 (정조 18)	『御定人瑞錄』	白紙	내입건 25건 반사건 72건	『日省錄』 1794년 9월 24일 기사.	
			冊紙	내입건 14건 반사건 5건		
			白綿紙	내입건 7건		
			중국지	粉唐紙		내입건 2갑, 16건 반사건 1갑, 9건
				毛面紙		내입건 1갑, 13건 반사건 1갑, 12건
太史紙	내입건 10건					
14	1794년 (정조 18)	『御定朱書百選』	白綿紙	내입건 52건 반사건 158건	『日省錄』 1794년 12월 25일 기사.	
			天銀紙	내입건 23건 반사건 72건		
			完白紙	내입건 22건 반사건 20건		
			不剪紙	반사건 25건		
			白紙	내입건 75건 반사건 90건		
15	1795년 (정조 19)	『正始文程』	京造紙	내입건 7건 반사건 3건	『日省錄』 1795년 4월 18일 기사.	
			白紙	내입건 50건 반사건 228건		
			중국지	毛面紙		내입건 3건 반사건 2건
				粉唐紙		내입건 3건 반사건 2건

조선후기 冊紙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연구

번호	반사 연도	서명	종이 명칭	배포 내역	출전	
16	1795년 (정조 19)	『豐沛賓興錄』	京造紙	내입건 2건 반사건 3건	『日省錄』 1795년 5월 7일 기사.	
			白紙	내입건 55건 반사건 218건		
			중국지	粉唐紙		내입건 2건 반사건 3건
				毛面紙		내입건 1건 반사건 4건
17	1795년 (정조 19)	『李忠武公全書』	壯紙	내입건 2건 반사건 18건	『日省錄』 1795년 11월 30일 기사.	
			白紙	내입건 57건 반사건 23건		
18	1796년 (정조 20)	『御定奎章全韻』	白紙	반사건 1304건	『日省錄』 1796년 8월 11일 기사.	
			嶺壯紙	반사건 38건		
			卷冊紙	반사건 25건		
			完壯紙	반사건 9건		
			白綿紙	반사건 29건		
			完白紙	반사건 51건		
			禮單紙	반사건 28건		
중국지	毛面紙	반사건 2건				
19	1796년 (정조 20)	『增修無冤錄諺解』	壯紙	반사건 25건	『日省錄』 1796년 12월 8일 기사.	
			白紙	반사건 28건		
20	1797년 (정조 21)	『鄉禮合編』	壯紙	내입건 10건 반사건 9건	『日省錄』 1797년 3월 24일 기사.	
			白紙	내입건 20건 반사건		
21	1797년 (정조 21)	『園幸乙卯整理儀軌』	壯紙	내입건 16건 반사건 11건	『日省錄』 1797년 3월 24일 기사.	
			白紙	내입건 10건 반사건 55건		
			중국지	唐紙		진상건 1건 내입건 5건 반사건 2건
22	1798년 (정조 22)	『五經百篇』	白綿紙	내입건 20건	『日省錄』 1798년 5월 4일 기사.	
			禮單紙	내입건 20건		
			白紙	내입건 10건		
23	1798년 (정조 22)	『春秋』	壯紙	반사건 20건	『日省錄』 1798년 10월 29일 기사.	
			別白紙	반사건 7건		
			白紙	반사건 20건		
24	1799년 (정조 23)	『雅頌』	白綿紙	50건	『日省錄』 1799년 9월 17일 기사.	
			禮單紙	50건		
			白紙	100건		
25	1800년 (정조 24)	『關西賓興錄』	稍厚白紙	내입건 3건 반사건 17건	『日省錄』 1800년 윤4월 3일 기사.	
			白紙	내입건 8건 반사건 22건		

[부록 2] 정조대 서적 반사 기록과 일치하는 실물

번호	서명	시기	수사자명	종이 종류	소장처
1	璿源系譜紀略	1783.04.00	吳載紹	白紙	수원박물관
2	字恤典則	1783.11.12	李時秀	白綿紙	규장각
		1783.11.12	洪仁浩	白綿紙	규장각
		1783.11.12	禮曹	白綿紙	장서각
		1783.11.12	李彥熙	白綿紙	규장각
3	奎章閣志	1784.06.12	五臺山	白綿紙	규장각
		1784.06.12	鼎足山	白綿紙	규장각
		1784.06.12	太白山	白綿紙	규장각
		1784.06.12	尹曠	天銀紙	연세대
4	弘文館志	1784.06.12	五臺山	白綿紙	규장각
		1784.06.12	鼎足山	白綿紙	규장각
		1784.06.12	權濬	白紙	규장각
		1784.06.12	尹曠	白紙	연세대
		1784.06.12	趙琰	白紙	연세대
5	文苑黼黻	1787.05.22	李性源	白紙	연세대
		1787.05.22	赤裳山	白紙	장서각
		1787.05.22	五臺山	白紙	규장각
		1787.05.22	太白山	白紙	규장각
6	御定人瑞錄	1794.09.00	五臺山	白紙	규장각
		1794.09.00	太白山	白紙	규장각
		1794.09.00	弘文館	白紙	규장각
7	朱書百選	1794.12.25	五臺山	白綿紙	규장각
		1794.12.25	赤裳山	白綿紙	장서각
		1794.12.25	鼎足山	白綿紙	규장각
		1794.12.25	太白山	白綿紙	규장각
8	正始文程	1795.04.18	赤裳山	白紙	장서각
		1795.04.18	李書九	白紙	연세대
		1795.04.18	崔璧	白紙	수원화성박물관
		1795.04.18	朴大和	白紙	영남대
		1795.04.18	五臺山	白紙	규장각
		1795.04.18	鼎足山	白紙	규장각
		1795.04.18	太白山	白紙	규장각
		1795.04.18	弘文館	白紙	규장각
10	豐沛賓興錄	1795.05.00	五臺山	白紙	규장각
		1795.05.00	赤裳山	白紙	장서각
		1795.05.00	鼎足山	白紙	규장각
		1795.05.00	太白山	白紙	규장각
		1795.05.00	弘文館	白紙	규장각
		1795.05.00	閔鍾顯	白紙	동양문고
		1795.05.00	李家煥	白紙	엔칭도서관

조선후기 冊紙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연구

번호	서명	시기	수사자명	종이 종류	소장처
11	李忠武公全書	1795.11.00	五臺山	壯紙	규장각
		1795.11.00	赤裳山	壯紙	장서각
		1795.11.00	鼎足山	壯紙	규장각
		1795.11.00	太白山	壯紙	규장각
12	御定奎章全韻	1796.08.00	五臺山	대본: 嶺壯紙 소본: 完壯紙	규장각
		1796.08.00	赤裳山	대본: 嶺壯紙 소본: 完壯紙	장서각
		1796.08.00	鼎足山	대본: 嶺壯紙 소본: 完壯紙	규장각
		1796.08.00	太白山	대본: 嶺壯紙 소본: 完壯紙	규장각
		1796.08.00	申星模	대본: 白紙	수원박물관
13	增修無冤錄大全	1796.12.00	五臺山	壯紙	규장각
		1796.12.00	赤裳山	壯紙	장서각
		1796.12.00	太白山	壯紙	규장각
14	鄉禮合編	1797.06.00	五臺山	白紙	규장각
		1797.06.00	赤裳山	白紙	장서각
		1797.06.00	鼎足山	白紙	규장각
		1797.06.00	太白山	白紙	규장각
15	園幸乙卯整理儀軌	1798.04.00	赤裳山	白紙	장서각
		1798.04.00	五臺山	白紙	규장각
		1798.04.00	華城行宮	壯紙	규장각
16	關西賓興錄	1800.04.00	赤裳山	稍厚白紙	장서각
		1800.04.00	五臺山	稍厚白紙	규장각

